

“내손은 금손”...DIY 목재·도예체험 운영

영암군 학교밖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적 소외감 해소·또래 집단 활동 형성 계기”

영암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3일 관내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체험(영암목재문화체험장) 및 도예 체험(호사)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각각 DIY 사업의 목재체험과 도예 체험으로 구성되어, 문화체험을 통해 자아효능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DIY 목재체험은 처음에 어렵게 생각되었는데 막상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조립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완성된 걸 보니 참 뿌듯했다. 또 도예체험을 통해

세상 하나뿐인 반려묘의 배식 그릇을 직접 만들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즐거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래와의 집단 활동을 통한 관계형성 및 사회성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만9세~24세)의 개별 욕구를 파악해 학습, 자립, 활동, 상담,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1) 470-6792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2024년도 국고건의 2023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27일, 강종만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국고건의 및 2023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총 92건에 1조 1,500억 원(국비 7,056억 원) 규모의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중점 협의하였다.
2024년도 국고 신규사업은 28건 2,886억 원(국비 433억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 사업 750억, ▲영광 군립 미술관 조성 200억, ▲수요기반 초소형 전기차 공용플랫폼 고도화 기술개발 290억, ▲영광군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60억, ▲조사료 가공 종합 유통센터 건립 180억, ▲민물장어 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 100억, ▲미래농업자 원육성센터 설립 80억 원 등이다.
2023년도에 중점 추진할 공모사업은 37건 3,500억 원(국비 145억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사업 80억, ▲분단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기관 53억,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73억,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980억,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협약사업 436억, ▲도시재생뉴딜사업 167억, ▲건강복지타운 조성 98억 원 등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무안고구마 느린 엽서로 잇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지난 7월 무안연꽃축제 기간동안 관광객 대상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지난 21일 200여 통의 크리스마스 엽서를 발송했다.
이날 발송한 엽서는 지난 7월 무안연꽃축제 기간 동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신활사업추진단)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 무안 고구마 주재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느린 엽서 쓰기’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작성된 엽서는 신활사업추진단이 느린 엽서 취지에 맞게 보관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보냈다.
무안=이기성기자

특히 이번 느린 엽서에는 현경면 행복하고 구마(대표 김영주)에서 후원한 10가지 고구마 사진엽서가 활용됐으며, 관광객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엽서를 골라 크리스마스 축하 글을 작성해 엽서를 작성하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에 엽서를 받는 이들에게까지 무안 고구마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명진 단장은 “무안고구마 사진엽서를 받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한여름 무안백련의 아름다운 추억이 선물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의 명물 ‘신안왕새우’ 특허청 상표등록

신안군은 신안왕새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안왕새우는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연간 55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민 먹거리이다.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친환경 새우양식 생산자들이 “신안왕새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리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신안에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이번 등록된 ‘신안왕새우’ 상표를 해마다 개최되는 섬왕새우축제 및 포장재 등에 사용함으로써 신안군이 왕새우 주산지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집단동료상담 발간

지역의 장애인센터 소속 상담전문가 5명이 3년간의 연구작업을 거쳐 발달장애인의 집단동료상담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서미화)는 29일 오후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활용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자는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2년간의 현장 실습까지 거쳐 발달장애인의 집단동료상담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와 비장애에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되고, 그림과 영상 등의 자료를 이용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집단동료상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미화 센터소장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책이 전국 30만 여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정신건강 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 보건소가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군 간 정신 건강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질의 사업 발굴을 통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정신응급 대응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했다.
군은 올 한 해 ▲중증 정신장애인 관리사업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신안에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이번 등록된 ‘신안왕새우’ 상표를 해마다 개최되는 섬왕새우축제 및 포장재 등에 사용함으로써 신안군이 왕새우 주산지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